

# 나전칠 공예품 제작과 수급(需給)에 관한 연구 - 나전칠기장 민종태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

채영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 학예연구관

chaeyoung@seoul.go.kr

## 국문초록

나전칠공예는 구한말 근대화를 시작으로 6·25전쟁 이후 산업 발전에 힘입어 본격적인 현대화의 길을 걷는다. 1900년대 전반에 걸쳐 펼쳐지는 나전칠공예의 흥망성쇠는 여타 공예 종목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다채롭다. 본 연구는 1929년 나전칠기계에 입문하여, 칠십 평생을 나전칠 공예품과 가구 제작에 매진한 민종태의 제작과 수급 활동을 주제로 한다. 민종태는 근대 나전칠기계의 중시조 격인 전성규의 제자로 살아생전 김봉룡, 송주안, 심부길, 김태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전칠기 장인이자 사업가이다. 특히 그는 한국 현대 나전칠공예의 호황기인 1970~80년대 주요 수급지였던 서울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종태 나전칠공예의 입문과 광복 전후의 초기 활동을 기술하고, 본격적인 나전칠 공예품 제작과 수급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1950~60년대를 다루었다. 또한 1970~80년대 이른바 '장롱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큰 규모의 가구를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 향합과 차통 등을 수출했던 그의 수급 활동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나전칠기장 보유자였던 민종태 제작 활동의 공예사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종태, 나전칠기, 공예품, 제작과 수급, 나전 도안

투고일자 2022. 6. 30. | 심사일자 2023. 7. 31. | 게재확정일자 2023. 8. 16.





## I. 머리말

나전칠공예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근대화를 시작하여 광복 이후에는 산업화에 힘입어 대규모로 제작, 수급되었다. 특히 1970~80년대 이른바 ‘장롱문화’의 전성기인 그 시절, 나전칠 공예품은 우리 주거공간을 채우는 주요한 기물이자 혼수 문화의 상징을 차지하며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파트의 보급은 새로운 공간 구성과 기능으로 우리의 주거 환경에 대한 취향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파는 나전칠공예의 제작과 소비로 직결되어 이후 급격한 사양길을 걷는 데 불씨가 되었다. 그리하여 구한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100여 년의 기간 동안 나전칠공예는 다른 공예 종목과 비교하였을 때 격동의 흥망성쇠를 겪는다. 이러한 나전칠공예의 격동기에 수많은 제작자들이 직공, 기술자, 장인, 작가 등의 이름으로 적을 두었다가 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2000년 이전까지 활동했던 나전칠 장인이자 사업가였던 민중태(閔鍾泰, 1915~1998)를 연구한다. 민중태는 1929년 전성규 공방에 들어가 나전칠공예를 시작하였으며 광복을 전후해서는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에 입선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인물이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나전칠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1953년 부산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온 민중태는 가회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공방을 옮기며 활동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이후 사회 복구의 목적으로 수공업과 경공업을 육성하는데, 민중태 역시 이러

한 변화에 동참하였다. 1960년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나전칠기에 대한 수급은 1970~80년대에 절정에 이른다. 그 시절 민중태는 나전칠 공예품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정별 분업화는 물론 공장형 제작 시스템을 갖추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회동(1953~1957), 계동·원서동(1957~1960), 안국동·아현동·후암동(1960~1967), 적선동(1967~1972) 그리고 이태원동·성남 공장(1972~1990년대 초)을 거치며 나전칠 공예품의 제작과 수급 현황을 달리하였다.

민중태의 나전칠 공예품의 제작과 수급을 정리하기 위해 유족인 민균홍<sup>1</sup>, 이상호<sup>2</sup> 등은 물론 젊은 시절 그의 공방에서 작업한 최상훈(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 손대현(서울시 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김의용(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등을 조사, 면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 자료를 비교, 검증하였다.<sup>3</sup> 1970~80년대 나전칠기의 부흥기에 민중태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의 나전칠기 공예품을 제작하던 장인으로, 삼성그룹에 독점적으로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하였다. 이 점은 당시 그가 주문에 의한 안정된 제작 활동을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제작과 수급 현황을 뒷받침하는 실제 작품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온전히 남아 있는 민중태 나전 도안도 함께 도판으로 제시하였다.<sup>4</sup>

## II. 나전칠 입문과 초기 활동

1 민균홍은 민중태의 7남으로 서울대 조소과 졸업, 프랑스 보자르에서 수학 후 서울대, 전통문화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는 조각가이다. 그 외 민중태의 3남 민길호와 7녀 민선미를 인터뷰하였다.

2 이상호는 민중태의 사촌 처남으로 1957년부터 1975년까지 민중태 나전공방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며 공방 경영에 많이 관여한 나전칠공예 장인이다.

3 평생에 걸쳐 가내에 공방을 두고 활동한 민중태의 특성에 착안하여 유족과 제자들의 면담을 통해 조사한 공방 변천사를 증빙하기 위해 유족의 협조하에 작고한 민중태의 제적등본을 확인하였다. 민중태는 1943년에서 1962년 사이 4남 3녀의 자녀를 출생 신고하면서 당시 주소지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1962년 이전의 가내 공방의 이주 현황과 주소지를 대조하였고, 이후의 이태원 공방과 성남 공장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어 참조하였다.

4 민중태가 남긴 도안은 925점으로, 2019년 5월 21일 그의 제자인 최상훈이 서울공예박물관에 일괄 기증하였다.

## 1. 나전칠 입문

민중태는 1915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155번지에서 태어나 1929년 나전칠기의 길에 들어서<sup>5</sup> 1998년 별세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 제작 활동에 매진하였다. 부친이던 민세기가 일본인과의 갈등으로 일찍 작고하는 바람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29년 6월 서울 삼청동 142번지에 위치한 전성규의 공방에 들어간다. 수곡 전성규(守谷 全成圭)는 1880년대 초 출생하여 1940년까지 활동한 나전칠기 명인으로<sup>6</sup>, 철종 때 어느 상공의 양아들로 들어가 어려서부터 왕실의 물건을 많이 접한 덕에 문화에 대한 소양과 안목이 높았다고 전해진다(서울특별시 1996: 9; 노유니아 2016: 125). 그는 1907년 서울에 올라온 통영 출신의 나전칠기 장인인 엄항주 등으로부터 기술을 터득하는데<sup>7</sup>, 탁월한 재능으로 국내는 물론 1920년 일본 도마야현 다카오카시에 있는 조선나전사에 초빙되는가 하면 1925년 프랑스 파리 세계장식미술 및 근대공예박람회(International Exhibition of Modern Decorative and Industrial Arts)에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한다.<sup>8</sup> 이렇듯 전성규는 주문에 의한 제작 외에도 자기 주관으로 나전칠 공예품을 제작하며 국내외 전람회에 출품하는 등 근대적 의미의 작가로도 활동한다.<sup>9</sup>

한편 그는 나전칠기 전승을 위한 후진 양성에도 특별한 의지를 보였다. 1907년 설립된 통영군립 공업

전습소와 1918년에 개소한 서울의 나전칠기실습소<sup>10</sup>에 적을 두고 근대식 목공과 칠 기술을 가르친 이력 그리고 비록 재정난으로 오래가지는 못하였으나 1927년 4년 과정의 나전실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한 활동 등은 이를 방증한다. 민중태는 전성규와 친분이 있던 외조부 김구성을 따라 그의 공방에 가게 된 것을 계기로 나전칠공예에 입문하는데, 민중태가 삼청동 공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고 익혔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다만 1923년 11월 25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전성규의 활동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공예품 제작을 위한 기능 전수를 넘어 수하의 제자들을 계몽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내 삼청동 사는 전성규씨는 …중략… 공업계에 패왕이라 할 만하다. 지금에는 자개조각 공장을 설치하고 직공을 모집해야 교수할분 아니라 …중략… 성심성의로 배워가며 실행함으로 아름다운 풍기를 하복기로 진력 중이데 인근에 있는 다른 공장의 직공들도 낮이면 직업에 종사하고 전역이면 모히어서 배호는 자가 날로 늘어간다 하니 참으로 축하할 일이거니와 부모 덕택에 의식걱정이 업슴을 밋고 주사청두로 도라단이며 부당한 행동을 하는 청년들이런 것 좀 보아서 정신을 차리어.’<sup>11</sup>

전성규의 문하에서 배우고 작업한 대표적인 인물

5 1937년 5월 11일 매일신보 「意外(의외)에入選(입선) 압호로더노력」.

6 1940년 12월 12일 매일신보 「螺鈿漆界巨匠 全成圭氏長逝(나전칠계거장 전성규씨장사)」에서 58세로 세상을 떠난 전성규의 부고를 알리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그의 출생연도를 1880년대 초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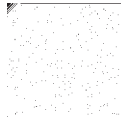
7 1940년 1월 9일 동아일보 「螺鈿漆器工藝化(나전칠기공예화)한 全城圭氏(전성규씨)는 전성규의 아들인 전창환을 인터뷰한 기사로, 전성규가 명치40년(1907)에 인천 감리 하상기에 의해 서울로 초치된 엄항주 등 6인으로부터 나전칠기를 배웠다든 내용이 있다.

8 1926년 1월 17일 동아일보 「萬國博覽會(만국박람회)에入賞(입상)된朝鮮(조선)의美術工藝品(미술공예품)」, 1927년 3월 6일 동아일보 「水陸萬里(수륙만리) 거처은光采(광채)있는賞狀(상장)」.

9 전성규는 파리 만국박람회 외에도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수목산수무제〉를 출품하여 입선(제2회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923, p.42), 일본 교토 만국박람회50년기념박람회에 출품하여 수상,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나전버루집〉으로 입선(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934, p.146),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 〈산수책상〉으로 입선(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937, p.137)에 입선하며 전람회 작가로 활동한다.

10 1918년 4월 16일 매일신보 「螺鈿漆器實習所(나전칠기실습소)開所式(개소식)의盛況(성황)」.

11 1923년 11월 25일 조선일보 「辭亭塔(사령탑)」.



로는 김봉룡, 심부길, 송주안이 있다. 산수문 등을 즐겨 새긴 문양의 소재성 그리고 이를 줄음질과 끊음질로 유려하게 붙여낸 전성규의 기량이 그의 제자인 김봉룡, 심부길, 송주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급 공방에서 일을 배우다가 상급 공방으로 자리를 옮기며 기술을 터하는 나전칠 장인들의 기술 체득 방식을 감안할 때 민종태 나전칠공예의 첫걸음에 오롯이 전성규가 있었음은 주지할 만하다. 민종태는 살아생전 전성규의 공방에서 나전칠기의 형태와 문양에 대한 도안에서부터 나전 부착법, 칠의 정제 기술과 도장 방법 등 나전칠기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에서부터 핵심 기술까지 전수 받았다고 하였다(서울특별시 1996: 10). 그리고 나전칠기 입문 8년 만에 1937년 제16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하는데, 그의 타고난 재능과 함께 전성규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는 지점이다.

‘금번 입선은 저 역시 별자신을 가지고 기대한 것은 아니...중략... 외에도 입선된 것다하니 오로지 여러 선생님의 후의에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히 첫길을 개척하여 주신 전성규씨에게 대하여 만공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압흐로는 더욱 전공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선배 선생들의 지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sup>12</sup>

## 2. 광복 전후의 초기 활동

1937년 전성규가 평북의 태천칠공예소 교장으로 가면서 김봉룡이 삼청동 공방을 이어 운영하게 되자 민종태는 한동안 그곳에 남아 작업한다. 그리고 같은 해 ‘한일상회 나전칠기제작소’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조선미술전람회(제16회)에 ‘봉황문문고’를 출품하여 입

선한다. 또한 그는 1939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나전칠기 전문점인 ‘부전상회’의 직원이던 한성만이 나전칠기 공방을 차리자 그곳으로 자리를 옮긴다(서울특별시 1996: 10). 역시 같은 해 조선미술전람회(제18회)에 ‘백합과수선화모양문고’를 출품하여 ‘의장과 모양 등이 잘 통일된 가작(佳作)’이라는 평을 받는다.<sup>13</sup>

이후 그는 ‘동화사’라는 이름으로 공방을 차려 작업을 시작하는데, 계속되는 기량의 향상으로 1939년 제1회 조선수출공예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우량으로 입상<sup>14</sup>하고, 1940년 각지방연합수출품전람회<sup>15</sup> 등에 출품하였다. 광복이 되고 나서는 의정부로 이사하여 공방을 열고,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향분을 출품하여 역시 입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sup>16</sup> 6·25



그림 1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민종태의 초기 작품. A: 나전칠기동봉황문문고, 1937, 제16회, B: 백합과수선화모양 문고, 1939, 제18회.

12 1937년 5월 11일 매일신보 「意外에入選 압흐로더노력」 중 민종태 인터뷰 인용.

13 1939년 6월 14일 동아일보 「第十八回朝鮮美展印象記(제십팔회조선미전인상기)」 기사 내용 인용.

14 1939년 11월 11일 朝鮮新聞 「輸出工藝品展의褒賞授與式舉行(수출공예품전의포상수여식거행)」.

15 1940년 1월 9일 朝鮮新聞 「大阪て開く輸出品展 朝鮮の出品(오사카에서 열린 수출품전 조선의 출품)」.

16 1949년 11월 19일 동아일보 「美術展入選者(미술전입선자) 百九十七名(백구십칠명)을決定(결정)」.



전쟁 당시에는 부산 광복동 동양칠기상회의 김삼출이 마련해 준 공방에서 제작 활동을 이어갔다(서울특별시 1996: 10).

6·25전쟁 이전 초기 민중태의 활동은 1929년 전성규의 공방에서 일을 배우던 전반기와 1937년 전성규가 태천으로 떠난 후 독립하여 자영하는 후반기로 나뉜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우리 전통공예가 붕괴되는 와중에도 나전칠공예는 민관의 경계없이 적극적인 근대화 길을 걷는다. 조선 전통공예의 진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제국 황실의 한성미술품제작소는 물론 조선미술전람회 11회부터 공예부가 신설되어 나전칠공예가 주요한 출품 종목으로 다루어진 점 그리고 통영과 태천 등 나전칠기 주요 생산지에 대한 투자는, 비록 국운이 기우는 구한말과 국권이 상실된 일제치하이지만 대표적인 관(官) 주도 활동이다. 이 시기 민중태는 1937년과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하며 나전칠공예의 근대화에 작은 족적을 남겼다.

**표 1** 조선미술전람회(공예부문)-나전칠기 출품작 비율서수연 · 이병중 2018: 159)

회차	전체	나전칠기
14	57	30(52%)
15	63	24(38%)
16	72	26(36%)
17	72	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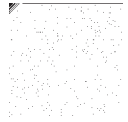
민간에서도 활발한 상업 활동을 펼쳤는데, 주요 소비층인 일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공예 상점들은 나전칠기 상품을 제작, 납품해 줄 장인들과 손을 잡고 판매를 했다. 이러한 시기 민중태 역시 한일상회, 부전상회, 동양칠기상회 등에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였다. 광복 전후 민중태는 나전칠기를 납품하는 제작자이자 조선미술전람회와 조선수출공예품전람회 등에 작품을 출품하여 입선하는 근대적 의미의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병행한다.

### Ⅲ. 나전칠 공예품 제작과 수급 현황

#### 1. 1950년대 가회동 가내공방(1953~1957), 계동 가내공방(1957~1960) · 원서동 (1957~?) 공장

1945년 광복 이후 나전칠기는 주요 소비층이 일 본인에서 미군으로 그리고 6·25전쟁 이후에는 국가 기관과 부유층으로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제품이 261,000점 수출, 국내 소비 181,800점이었던 것이,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 진주 후 464,050점 생산, 외국인 소비 1,103,460,000원, 전국 96개 공장 운영, 681명 직공이 나전칠기업에 종사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서수연 · 이병중 2018: 159). 이는 국가 차원의 공예 산업을 육성한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미국 국무부의 원조를 받아 수공예 산업과 소규모 가내 공업 육성이라는 정책하에 1950년 한국공예시범소를 설립할 뿐 아니라 나전칠기를 수출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하여 캐나다와 미국 등지의 박람회에 선보인다. 그리고 필리핀과 미국 등으로부터 실제 주문을 받아 수출하는 등 나전칠기 산업화의 가능성을 타진한다(하훈 2023: 176). 한편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공예부를 두어 미술공예로서의 활동 역시 장려하였다.

이른바 본격적인 현대 나전칠공예의 태동기인 1950년대, 민중태는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종로구 가회동(1953~1957)에 정착하여 가내에 공방을 연다. 그리고 1957년에는 계동(1957~1960)으로 이사하여 역시 가내에 공방을 둔과 동시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원서동(1957~?)의 과자 공장을 인수하여 백골 작업을 위한 별도의 공장을 차린다. 1959년 7월 25일 군 제대 후 바로 민중태 공방에 취직한 이상호는 민중태가 가회동과 계동 시절부터 나전부와 칠부 그리고 소목 작업을 하는 백골부를 두어 이른 시기부터 분업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였음을 증언한다. 물론 칠장과 나전장, 소목장 그리고 두석장 등과의 협업은 나전칠기 제작에



전통적인 방법론이기는 하나 분야별 3~4명씩, 총 10여 명<sup>17</sup>에 이르는 직공이 가내에서 상주하였다는 것은 전쟁 이후 점차 늘어나는 나전칠기의 수요에 민중태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광복 이후 나전칠공예는 제작 품목에 변화를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을 위한 소반, 찬합, 연갑, 상자 등이 제작되었다면 6·25전쟁 전후에는 국내에 유입된 미군들을 위한 품목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한국적 특징이 드러나는 나전칠기를 선호하여 제작자들은 라이터와 기념품 등에 전통 문양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전쟁 이후 나전칠 공예품은 국민 증답용이나 정부 고위직 관료를 위한 선물, 그리고 외화 획득을 위한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되었다(이연재 2009: 356). 1953년 가회동 공방 시절 민중태 역시 외교 사절단을 위한 기념품과 국민용 선물을 제작하여 경무대 등에 납품하는데, 명패와 상패·지휘봉·보석함·화병·문고 등의 소품이 주를 이루었다. 6·25전쟁 이후 주둔한 미군 혹은 외교사절들이 귀국하면서 선물로 한국의 나전칠기 소품을 선호하였다는 연구(하훈 2023: 197)로 미루어 보건대 민중태의 제작 활동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나전칠은 소품을 넘어 집안을 채울 가구 제작에도 적용된다. 당시 의결이장, 삼층장, 이층장 등에 약간의 자개가 박혀 있는 것을 고급으로 쳤다(손영학 2003: 37). 1957년 계동으로 공방을 옮긴 민중태가 좌경대와 교자상, 문갑, 화장대, 사방탁자 등으로 제작품의 규모를 점차 키우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시기 주지할 만한 사항은 통영의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출신들이 민중태의 계동 공방으로 실

습을 나왔다는 점이다. 경상남도 도립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는 1951년 8월에 설립된 나전칠기 교육기관으로 2년 과정이다. 전문 미술교육 기관에 준하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소묘, 정밀묘사, 디자인, 설계제도와 같은 현대식 디자인 과정부터 나전과 옷칠 실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나전칠기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강사진으로는 나전칠기에 김봉룡, 옷칠에 안용호, 소묘에 장운성, 디자인과 설계제도는 유강렬이 담당하였다(하훈 2023: 178~180).

표 2 경남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교수와 담당 과목(손영학 2003: 27)

과목	교수자	과목	교수자
나전칠기	김봉룡	칠실기	안용호
이론 및 소묘	장운성	특강(건축)	강창원
구성·정밀묘사 문양	유강렬	끊음질기사	심부길

1957년 가회동에서 계동으로 공방을 이전하면서 민중태는 원서동에 별도의 공장을 둘 뿐 아니라 목공은 물론 일부 나전 작업까지 외주를 줄 정도로<sup>18</sup> 큰 규모의 제작 활동을 하였다. 이때 전성규 문하에서 민중태와 사형(師兄) 관계로 인연을 맺은 김봉룡이 서울의 민중태 공방으로 양성소의 학생들을 보내어 실습하게 한 것이다.<sup>19</sup> 이곳 출신의 졸업자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나전칠기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다는 기존 연구(손영학 2003; 하훈 2023)는 물론 1961년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를 사임한 김봉룡의 이력과 민중태가 1960년 아현동 공장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통영의 실습생이 오지 않았다는 유족의 증언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7 이상호는 1950년대 민중태 공방에 적을 두고 드나들었던 직공으로 박성희, 하광석, 이종득(이상 나전부), 이성규, 성광지, 김석중, 양익환, 허섭, 권순화, 우상선(이상 칠부), 김영창, (이상 목공), 김철수(이상 철공) 등이 구술하였다.

18 이상호는 민중태 계동 공방 시절 심부길, 이성만에게 나전 외주를 주었다고 증언한다.

19 김봉룡은 1951년 8월 개원 초기 나전칠기기술원 강습소의 강사로 활동하다 1952년 사직하여 자영하다 1956년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부소장으로 취임하여 1961년까지 활동한다. 김봉룡은 민중태에게 양성소의 학생들을 보내어 실습하게 하였는데 어린 청소년기에 양성소에서 체계적으로 나전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보니 일을 시키면 곧잘 하였다고 이상호는 증언한다.

## 2. 1960년대 안국동 가내공방(1960~1964) · 아현동 공장(1960~1972) · 후암동 공장 (1960~?), 적선동 가내공방(1967~1972)

현대 나전칠공예는 1950년대 태동기를 지나 1960년대 발전기를 거쳐 1970~80년대 호황기를 맞게 된다. 1960년대 현대 나전칠공예는 정부의 산업화 정책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대중의 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상공부 주도의 가내공업, 잡화 산업, 지방 특화산업, 토산품, 민예품 육성 정책 안에서 나전칠기는 여전히 지원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의 전통문화 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전통공예기술제도(중요무형문화재)가 수립되었는데 보존 종목 중 하나로 1966년 ‘제10호 나전장’으로 김봉룡이 지정됨으로써(서수연 · 이병중 2018: 159) 나전칠공예의 전통 가치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나전칠공예를 둘러싼 산업화와 전통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오래전 왕실이나 국가의 외교사절단, 일부 부유층의 전유품이었던 나전칠 공예품을 대중적인 소비재로 인식하게 하였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주거 양식의 변화 역시 한 몫 하였다. 초가집이나 전통 한옥이 큰 규모의 양옥집으로 바뀌면서 집 안을 채울 가구로 나전칠 가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자개장’은 중류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여 혼수는 물론 가구의 장식화와 상류층에 대한 모방 심리까지 더해져(서수연 · 이병중 2018: 160) 전 계층에서 과시적으로 소비되었다. 나전칠기 공방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업 방식을 더욱 체계화하고 일부 공정에서는 기계화는 물론 재료 사용에서도 옷칠과 캐슈 그리고 대형 수입 자개 등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렸다. 규모가 큰 나전칠기 공장에서는 가구를 생산할 때에는 백골을 다른 소목 공장에서 주문해 들여오

기도 하고, 빠른 작업을 위해 나전 작업의 외주는 물론 해당 분야마다 여러 명의 전문 직공과 장인을 두는 제작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장경희 2014: 13).

1960년 민중태는 계동에서 안국동(1960~1964)으로 공방을 옮기며 ‘서울공예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 무렵 후암동(1960~?)의 일본식 연립주택을 인수하여 백골 작업을 위한 공장을 두기도 하는데, 이후 민중태는 안국동 가내공방을 매각하여 견지동(1964~1967)으로 이사하였다. 이때 매각비가 남아 1967년 아현동(1960~1972) 공장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가내에 공방을 두고 작업했는데, 견지동 시절에는 가내에 공방을 두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시절 음식점을 2년 정도 경영한다. 민중태는 아현동 공장을 유지한 채 1967년 현재의 정부종합청사 뒤에 위치한 적선동(1967~1972)으로 또 공방을 옮긴다. 1960년대 민중태 역시 집 안을 채울 나전칠 가구 제작에 주력한다.<sup>20</sup>



그림 2 민중태의 1960년대 나전 도안. A: 금관 도안, B: 금령총금관 도안.

이 시기 민중태 나전 작품 도안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문화재문(文化財文)이다. 일제강점기 고구려 고분벽화나 낙랑칠기 유물에서 나온 복고 문양에 대한 취향은 1950년대 전후 한국에 유입된 미군들의 한국 문양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기념품이나 담뱃갑

20 이상호는 1967년 민중태 적선동과 아현동 공방 시절 직공으로 김익용(이상 나전부, 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익용과 동명이인), 김차봉, 정정갑, 허영식(이상 칠부), 이상도(이상 목공), 강부재(외주 나전장) 등이 구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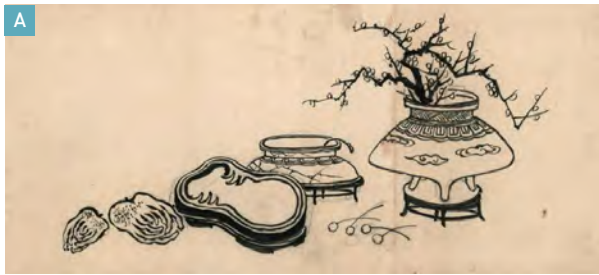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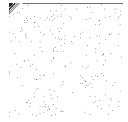


그림 3 1960년대 문화재문이 새겨진 나전칠 공예품. A: 김봉룡, 문화재문 기물 도안, 1960년대, 통영시립박물관 소장, B: 김태희, 나전고기 물문장롱, 1962,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과 같은 작은 물건에 시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류와 자개패의 수입으로 인한 재료의 규모화, 다양화와 맞물려 전통 건축물이나 와당, 탑 등의 문화재 문양이 큰 기물이나 가구에 단독으로 새겨지기에 이른다(이연재 2010: 342, 352~353). 이러한 유행은 당시 제작된 김봉룡, 송주안의 나전 도안이나 김태희의 작품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60년대 후반 민중태가 아현동에서 사용한 도안을 보면 당시 국보 혹은 문화재 도안의 유행이 그에게도 유효했음을 알 수 있다.

적선동 가내 공방과 아현동 공장을 운영하던 이 시기 민중태는 1970~80년대 그의 나전칠기 공예품 제작과 수급 방식에 중요한 기틀을 다진다. 그중 한 가지는 이병철 회장과 그의 인연으로 삼성에 나전칠기 소품과 함께 큰 규모의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평소 나전칠기를 애호하던 이병철과 민중태가 어떠한 경로로 교류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70~80년대 민중태 공방의 크고 작은 제작품 대부분이 삼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기틀이 이 시기에 마

련된다. 그래서인지 민중태는 아현동 공장을 정리하고 좀 더 큰 작업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다 성남으로 가닥을 잡고 공장 이전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민중태는 불단이나 향합 등의 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3. 1970~80년대 이태원동 가내공방 (1972~1994) · 성남 태평동 공장(1972~1994)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해 1970년대 나전칠공예의 주요 제작품은 장롱, 화장대, 서랍장, 장식장 등 큰 규모의 가구로 주를 이루게 된다. 그중 장롱은 안방의 크기에 따라 8, 9, 10, 11, 12자로 분류되는데 9자 이상은 옷장, 이불장으로 구성된다(손영학 2003: 38). 이른바 '장롱문화'의 전성기인 이때, 나전칠공예는 '나전장'으로 한국 혼수 문화의 큰 상징을 차지하며 호황기를 보낸다(강혜승 2019: 247). 자개 공장이 전국에 1천여 개에 이르던 시절이다. 이러한 나전장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수요는 최고급 장롱부터 염가의 모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비되었다. 그 결과 나전칠공예는 전자로 인해 1978년 정부로부터 사치품으로 규정되어 특별 소비세 대상이 되었고, 후자로 인해 질적 하락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본격화된 아파트 보급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 안을 채우는 가구의 기능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모두는 나전칠공예의 급격한 쇠락으로 직결되었다.

1972년 민중태는 이태원동(1972~1994)으로 이사하여 역시 가내에 공방을 차리고 동시에 성남시 태평동에 공장을 마련해 1970년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나전칠공예의 호황기를 보냈다. 이 당시 작업했던 김의용, 최상훈, 손대현에 따르면 성남 태평동(1972~1990년대 초) 공장에서는 주로 가구의 백골 작업을 했고, 이태원 공방에서는 나전과 칠 작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한다. 먼지가 많은 소목 작업과 정갈해야 하는 나전과 칠 작업을 일정 부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였으나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않았다. 민중태는 이 시



기 ‘동화사’와 ‘미룡사’라는 상호로 활동했다. 현재 남아 있는 동화사 서류 봉투에는 당시 성남 공장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그가 주력으로 제작했던 ‘나전칠기, 조각공예, 특수가구, 고전가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1970~80년대 나전 가구 수급에 민중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전칠기는 예부터 귀한 공예품이었기 때문

에 대부분 주문 제작하였다. 고가의 작품을 견본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선보이기에는 재료와 인력에 드는 공임이 만만치 않아, 도안이 주문을 위한 일종의 카탈로그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판매장에 내놓았다 하더라도 구입자를 만날 때까지 외상이나 어음 거래로 버텨야 하니 자본 회전율이 낮은 영세한 공방은 파산에 이르기 일쑤였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나전칠기는 자연스럽게 제작자와 판매자가 분리되었다. 나전칠 장인들은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하고, 판매자는 자신들만의 인맥을 통한 판로를 관리하는 특유의 유통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었다(하훈 2023: 243~244). 따라서 납품처를 확보한 나전 공방이나 장인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량 향상의 길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삼성과 거래한 민중태는 1970년대부터 거의 대부분의 제작품을 삼성에 납품했다. 1960년대 말부터 민중태 공방에 적을 두고 작업한 대표적인 이로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인 최상훈, 서울시 무형문화재 칠장 손대현, 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의용, 경기도 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인 배금용 등이 있다. 1970~80년대 삼성이 주문을 본격화하던 시절 민중태 공방의 제작 현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최상훈과 손대현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최상훈은 1969년 스승인 민중태의 공방에서 작업을 배우기 시작하며 1980년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중앙일보 등 사옥의 집기를 나전칠기로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백골 공방은(민중태가 이병철로부터 인수한)<sup>22</sup> 삼성 계열의 중앙개발이었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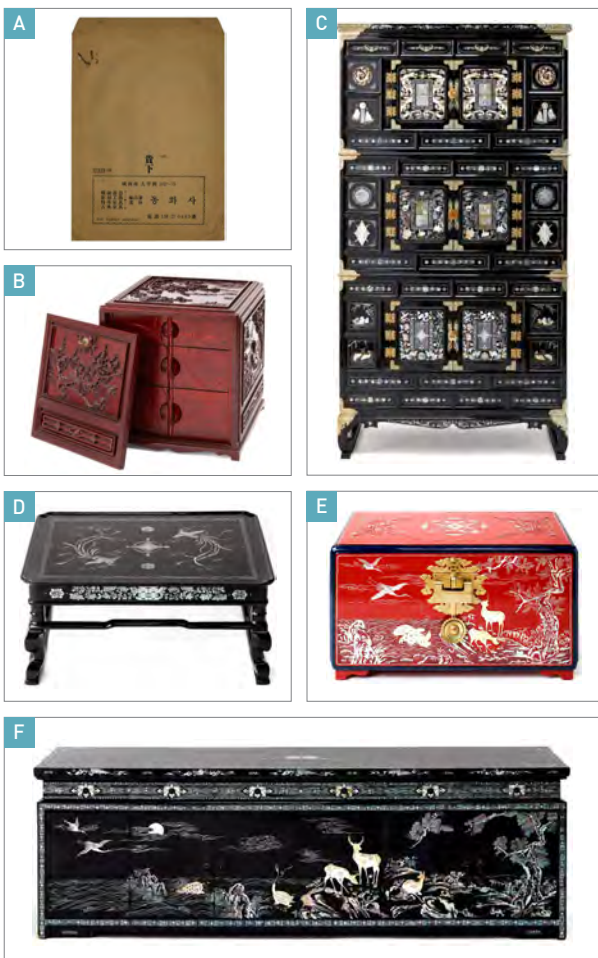


그림 4 민중태가 사용했던 동화사 서류 봉투와 1970~80년대 제작된 나전칠기 가구들<sup>21</sup>. A: 동화사 서류 봉투, B: 목제 양각 화조문 협탁, 1983, 41×43×43cm, C: 나전칠 삼층롱, 1970년대, 97×53×180cm, D: 나전칠 봉황문 소반, 1980년대 초, 61×45.5×28cm, E: 나전칠 장생문 함, 1980년대 초, 61×36×33.5cm, F: 나전칠 십장생문 문갑, 1980년대 초, 141×34×45.5cm.

21 1970~80년대 제작된 ①~⑥번의 작품은 민중태 유가족의 소장품으로 ②번은 민중태가 사돈의 환갑 선물용으로 제작한 소반으로 상 아래에 靛回甲(축회갑)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③번은 민중태가 막내 며느리의 혼수함으로 제작한 것이며 ④번은 막내딸이 결혼 당시 혼수품으로 선물받은 문갑이다.

22 민중태가 삼성 계열의 중앙개발로부터 백골을 받아서 작업하였다는 최상훈의 구술에 대해 유가족 측은 이병철로부터 중앙개발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괄호로 표기하여 보완하였다.

위치는 이병철 회장의 장충동 자택 옆에 있었다. 중앙개발에서 백골을 완성하면 최상훈은 이태원에 위치한 서울공예시<sup>23</sup>에서 나전작업을 수행했다. 당시 민중태는 이태원 공방, 성남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곳에 하청을 주었고, 당시 나전 작업에 동원된 장인만 약 50~60명이었을 정도로 작품을 많이 했다(장경희 2014: 131).’

‘한편 서울시 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인 손대현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1968년에 민중태 문하에 들게 되었다. 서울 적선동에서 시작한 문하생 생활은 경기도 성남으로 공방이 이전되면서 ... 중략... 이때 백골부, 칠부, 나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방 체제에서 손대현은 칠부의 선임을 맡았다. 당시에는 삼성의 이 회장이 주문하는 양만 소화하려 해도 눈코 뜰 새가 없었다고 회고한다(최공호·이승주 2020: 149).’

이병철은 나전칠기 애호가로 자택은 물론 사무실 집기에서부터 외국 바이어에게 주는 선물, 임직원에게 보내는 기념품까지 민중태에게 의뢰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판로가 정해진 작품은 주문자의 요구와 안목을 충족시켜야 하기 마련이다. 작업에 상당히 엄격했던 민중태와 높은 안목의 이병철이 만들어낸 작품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그때 제작된 상당수 작품이 여전히 삼성가에 소장되어 있다고 민중태의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지만 실물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당시 사용된 설계도와 도안의 상당수가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향후 작품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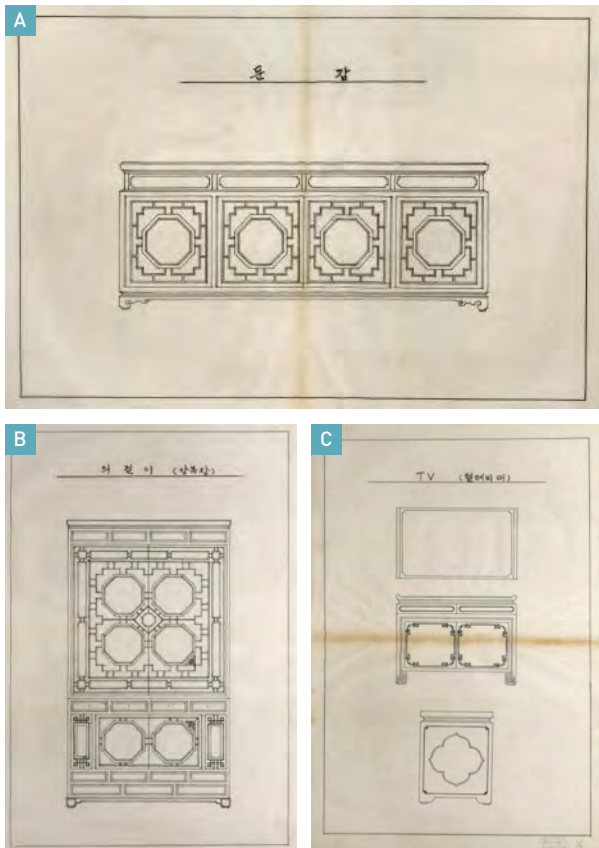


그림 5 1970~80년대 삼성(중앙개발)에 납품한 나전칠기구. A: 문갑 백골 도안, B: 의결이장(양복장) 백골 도안, C: TV 받침대 백골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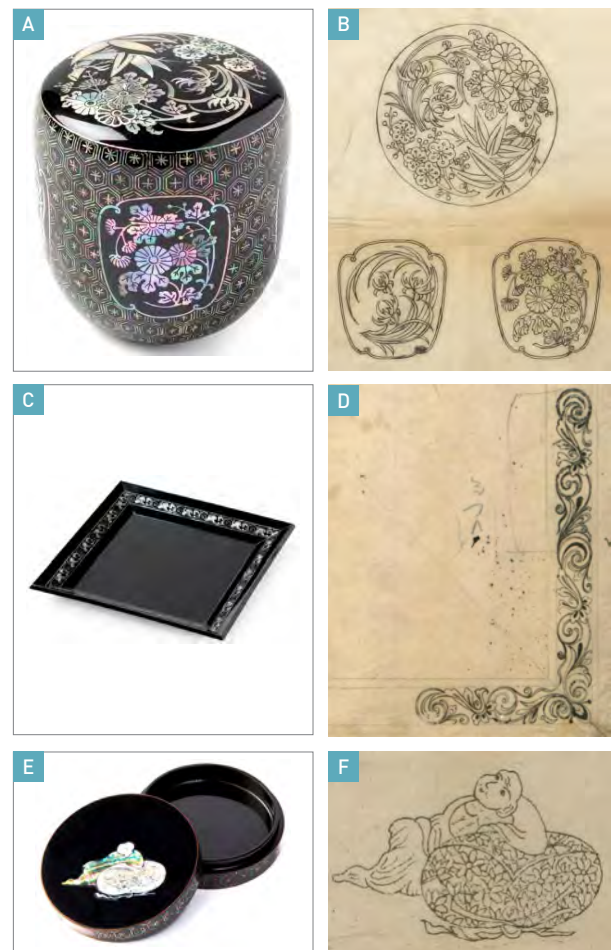


그림 6 1970~80년대 민중태 일본 수출 작품. A: 나전칠 사군자문 차통 1970년대 후반, 7.7×7.5cm, B: 차통 도안, C: 나전칠기 사각반, 1970년대, 19.5×19.5×2.4cm, D: 사각반 도안, E: 나전칠 인물 문 향합 1970년대 초반, 2×2.7cm, F: 향합 도안.

23 민중태가 1960년대부터 사용한 공방 상호이다.

연구, 발굴에 실마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민중태는 이 시기 불단과 향합, 차통, 반 등을 제작하여 일본에 수출했다. 그는 일본 수출 시 ‘미류사’와 ‘동화사’<sup>24</sup>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미류사의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11-9번지이고, 동화사 주소지는 성남시 태평동 102-75번지로 각기 이태원 공방과 성남 공방이다. 제자들과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공방에는 나전칠 제작품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일본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다. 실제 일본으로부터 온 당시 주문서를 살펴보면 제작 품목의 면면을 알 수 있다. 그중 사찰에서 불교 의식이나 제사에 사용하는

향합, 다도에 사용되는 대추라는 뜻의 ‘나쓰메(なつめ)’와 접시용 사각반은 특히 인기가 많았다. <그림 7>의 해당 단가 정보를 통해 그의 작품이 일본에서도 상당한 고가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크기가 작아 매우 정교하게 백골을 짜야 했는데 완벽한 짜임과 함께 섬세하게 새겨진 나전 솜씨로 인해 일본에서 고급품으로 소비되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나전칠기를 제작하지만 전시 개최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그중 두 번이 일본에서다. 1969년과 1972년 동경 신주쿠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나전칠기 작품 전시회에 초대되는데 일본에서 그의 나전칠 공예품에 대한 인기를 가늠케 하는 지점이다.

#### IV. 나전칠 제작 활동의 공예사적 의의

민중태는 1990년대 초 이태원과 성남 공장을 정리하고 둔촌동으로 이주하여 말년을 보낸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시작된 아파트 문화는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양식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아파트 문화의 정착은 불박이장과 거실장, 주방기구, 소파 등과 같은 새로운 가구 패턴을 요구하였다(손영학 2003: 183). 그 결과 시대를 풍미하며 안방을 차지하던 나전칠 가구와 공예품들을 빠르게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많은 제작자는 그 앞에서 나전칠공예계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전승자로서 장인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민중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중태는 서울시에 심사를 신청하여 199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나전칠기장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2년 후인 1998년 별세한다. 그의 나이 향년 84세였다.

후자의 말대로 근현대 한국 공예는 예술과 산업의 기로에서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나전칠공예에는 어느 분야보다 이러한 변화에 맞닿아 있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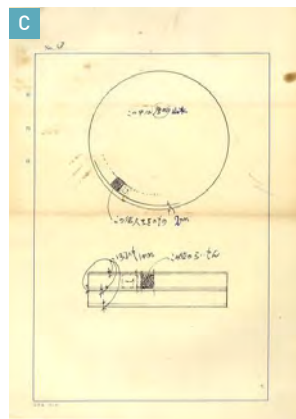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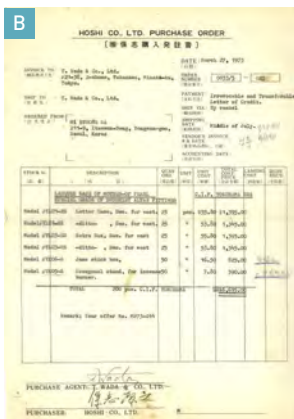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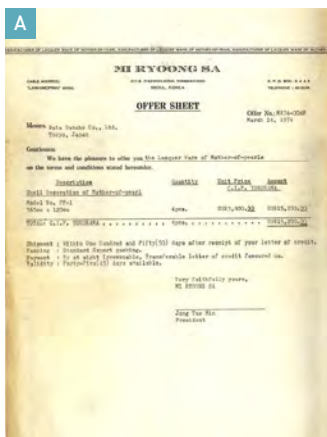


그림 7 1970~80년대 민중태 일본 수출 관련 문서 자료. A: 1974년 3월 14일 도쿄 소재의 Daia Sansho 회사에서 미류사에 보낸 주문서로, (360×120cm 사이즈 나전칠기 작품(4개/개당 3,800달러)), B: 1973년 3월 27일 도쿄 소재의 HOSHI 회사에서 미류사에 보낸 주문서로, (편지 케이스(50개/개당 55.8달러), 수트라 박스(50개/개당 55.8달러), 향초 박스(50개/개당 16.5달러), 향버너를 위한 스탠드(50개/개당 7.8달러)), C: 1974년 8월 10일 일본 대도가 오시마 집안에서 온 주문서에 첨부된 향합 도안.

24 동화사는 1939년 전성규 공방에서 나와 처음 자영을 시작할 때 사용한 상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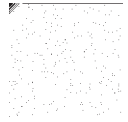


표 3 6 · 25전쟁 이후 현대 나전칠 공예 생산·소비 현황과 민중태 나전공예품 제작 활동사

년도	현대 나전칠공예 생산·소비 현황 (손영학 2003: 190~197)	민중태 나전공예품 제작 활동사		
		거주지(번지)	작업공방(번지)	작업물 등 주요 사항
1953	- 국내 주둔 미군이나 외교사절의 수요 ⇒ 현대 나전칠공예의 태동기	가회동 (30-2)	가내	국빈 선물용 등 경무대 납품 명패, 상패, 지휘봉, 보석함, 화병, 문고 등 소품
1957		계동 (140-9)	가내와 원서동 공장	교자상, 문갑, 좌경대 등 소형 가구 제작
1960	- 나전칠공예의 산업화, 대량화에 따른 수입산 자개와 캐슈칠 등장 ⇒ 현대 나전칠공예의 대중적 인지도 상승기	안국동 (42)	가내와 아현동 공장 (476) 후암동 공장	소형에서 대형 가구 생산 상호: 서울공예사
1964		건지동	아현동 공방 후암동 공장	(가내에 공방을 두지 않음)
1967		적선동 (177)	가내와 아현동 공장	삼성(중앙개발) 납품 / 일본 수출과 성남 공장 준비
1972	- 자개 공장 전국 1천여 개 형성 ⇒ 현대 나전칠공예의 소비 활성화	이태원동 (211-9)	가내와 성남 공장 (태평동 102-75)	삼성에 지속적인 납품 불단, 향합 등 일본 수출 상호: 동화사 / 미룡사
1995	- 아파트와 서양 명품 가구 수입 등	둔촌동	가내	*199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1998	⇒ 생활방식 변화로 인한 사양화			민중태 별세

리고 그 안에서 민중태의 제작과 수급 활동은 우리 현대 나전칠공예의 생산과 소비에 많은 부침으로 작용하여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그의 제작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만 언급되어 왔던 민중태의 삶을 한국의 현대 나전칠기공예의 제작과 수급 현황 속에서 복원하고자 하였다. 현대에 작고한 수많은 장인들의 족적이 빠르게 망각되고 있는데 민중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고 이후 도안과 일부 작품이 남겨져 있지만 그에 대한 기본적인 생애사는 물론 우리 근현대 나전칠공예계 안에서의 그의 활동사 역시 좌표를 찍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연구, 기술하였다.

14세에 나전칠을 시작하여 작고할 때까지 민중태는 평생을 나전칠공예 제작자로 살았다. 70년에 이르는 그의 활동을 크게 가르마 탄다면 일제강점기 전성규 공방에서 수학을 시작으로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하여 나전칠기 작가로 활동하던 전반기와 6·25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생활 속 쓰임을 위한 다양한 기물과 가구를 제작하며 가장 전위에서 나전칠기 보급에 앞장섰던 그는 1950년대 국내 주둔의 미군이나 외교사절, 그리고 정부의 수요를 위한 기념품과 문고품을 시작으로 점차 좌경대나 문갑 등과 같은 소형 가구를 제

작하였다. 그리고 현대 나전칠공예의 대중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1960년대 안국동과 적선동에 가내공방과 후암동, 아현동에 별도 공장을 두어 점차 대형화되는 나전칠 공예품과 가구의 수급에 대응하였다. 전국의 자개 공장이 1천 개 넘게 있었던 1970~80년대 그는 이태원 공방과 성남 공장에서 나전칠 가구와 기물을 제작하며 삼성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한편 일본으로 향합과 불단 등을 수출하였다.

한편 그는 나전칠기의 제작과 수급을 위해 자신의 공방을 사업체 수준으로 운영하는 와중에도 1950년 한국나전공예협회장, 1965년 한국수출품검사소 나전칠기분과 위원장, 1968년 한국나전칠기기술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나전칠공예 발전에 자신의 소임을 보태기도 하였다. 1996년 서울시에 제출된 민중태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민중태 씨는 젊은 나이에 입문한 이래 나전칠기 제작에만 평생을 바치면서 전통의 계승과 창조에 심혈을 기울여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의 비극인 6.25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그의 의지를 꺾어본 적이 없는 외골수의 장인으로서 서류에 영합하지 않고 주름질과 옷칠만을 고집하면서 제작들을 길러낸 이 시대의 보기 드문 공예가이다. 그



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선이 굵고 웅장한데,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화려하여 우리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독특한 세계를 이룩하였다.”(서울특별시 1996: 11)

## V. 맺음말

본 연구는 근현대 나전칠기 장인인 민중태의 제작 활동과 수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 생전의 신문기사와 문화재지정 보고서 등을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그동안 뜻 있는 몇몇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행한 구술채록 등을 참조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그의 유족과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집중 면담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작 활동의 맥락을 좀 더 풍요롭게 복원하기 위해 근현대 나전칠 공예의 전개에 대한 여러 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나전칠공예는 저렴한 관광상품이나 토속품으로 제작, 유통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전문 공예작가나 장인들의 창작 활동으로 나전칠공예는 수준 높은 예술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가지 표정은 극과 극으로 보이지만 나전공예품이 과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사용되던 것에서 멀어졌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 평생 쓰임을 전제하는 나전칠기와 가구를 제작한 민중태의 공예 제작자로서의 삶이 향후 어떠한 시사점으로 다가올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연구 과정 동안 접하게 된 민중태의 도안과 작품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잊히고 있던 민중태를 부족하게나마 입체적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 연구에서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된 민중태 나전 도안 및 관련 자료를 놓고 그의 공예품 제작과 당시 수급 현황을 매칭하는 전체 지도를 그리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서울공예박물관이 2023년 5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개최한 특별전 〈나전장의 도안실〉의 내용 중 민중태에 관련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본 저자가 전시 도록에 수록한 「한 시대를 풍미한 민중태의 삶과 예술」을 확대, 보완하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권상오, 2007, 나전공예, 대원사.
- 최공호, 2008, 한국 근대공예사론-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미술문화.
- 하훈, 2023, 통영 그리고 근대 나전칠기의 기억, 선인, pp.176, 178~180, 197, 243~244.

### 보고서 및 도록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9, 근·현대 나전도안,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10,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나전장 김봉룡의 도안(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2009,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송방웅) 전승 도안, 국립문화재연구소.
- 서울공예박물관 편, 2023, 나전장의 도안실-민중태 · 김태희, 서울공예박물관.
- 유성웅 · 이광웅 · 장경희 · 전해운, 2014, 국립무형유산원, pp.13, 131.
- 최공호 · 이승주, 2020, 칠장(옷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1호, 서울특별시, p.149.
- 최철 외, 1996,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閔鍾泰의 螺鈿漆器製作技能』, 서울특별시, pp.7~11.

### 학위논문

- 강혜승, 2019, 한국 주거문화에 나타난 근대화의 성격과 가구의 표상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p.247.
- 하훈, 2018, 근대 통영지역 나전칠기 산업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논문.

### 학술논문

- 강연경, 2018,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공업 정책과 나전 기술의 변용」, 『무형유산』, pp.169~193.
- 김헌선, 1997, 「한국 장인의 예술과 정신세계 나전칠기 인간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pp.207~240.
- 노유니아, 2016, 「조선나전사(朝鮮之螺鈿社)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2), 국립문화재연구소, p.125.
- 서수연 · 이병중, 2014, 「나전 칠기의 사회적 확산: 1873년~2000년대 사이 생산-유통-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발표요지』, 한국디자인학회, pp.159, 160.
- 이연재, 2010, 「근·현대 나전도안과 공예품의 수급(需給)형태-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소장 나전도안을 중심으로」, 『문화재』 49, 국립문화재연구소, pp.352~353, 356.
- 손영학, 2003,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 『향토사연구』 제15집 pp.27, 37, 38, 183, 190~197.
- 정영환 · 전해운, 2008, 「조선나전의 변천과 일본에 미친 영향」, 『조형디자인연구』, pp.1~23.
- 최공호, 2017, 「金奉龍의 나전기술과 근대 공예적 성취」, 『미술사연구』, pp.167~187.
- 하훈, 2018, 「일제강점기 통영에서의 일본인 나전칠기 산업의 침투」, 『일본근대학연구』 62, pp.373~394.
- 한단아, 2020,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정책과 제작 연구」, 『무형유산』, pp.187~221.

### 신문기사

- 「螺鈿漆器實習所開 所式의盛況」, 『매일신보』, 1918.4.16.
- 「辭令塔」, 『조선일보』, 1923.11.25.
- 「萬國博覽會에入賞된朝鮮의美術工藝品」, 『동아일보』, 1926.1.17.
- 「意外에入選 압호로더노력」, 『매일신보』, 1937.5.11.

## 참고문헌

- 「出品은增, 入選은減」, 『조선일보』, 1937.05.11.
- 「第十八回朝鮮美展印象記」, 『동아일보』, 1939.06.14.
- 「輸出工藝品展の褒賞授與式舉行」, 『朝鮮新聞』, 1939.11.11.
- 「大阪で開く輸出品展 朝鮮の出品」, 『朝鮮新聞』, 1940.01.09.
- 「螺鈿漆器工藝化한全城圭氏」, 『동아일보』, 1940.1.9.
- 「螺鈿漆界巨匠 全成圭氏長逝」, 『매일신보』, 1940.12.12.
- 「美術展入選者 百九十七名을決定」, 『동아일보』, 1949.11.19.
-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서울시 9명 추가인정」, 『동아일보』, 1996.12.31.

## 기타

- 서울공예박물관 편, 2023, 민중태 생애사 관련 주변인 구술채록(가제), 서울공예박물관.
  - 2023.1.12. 손대현, 김익용 조사면담.
  - 2023.1.16. 최상훈 조사면담.
  - 2023.1.26. 민균홍 조사면담.
  - 2023.2.21. 민선미, 민균홍 조사면담.
  - 2023.3.10. 이상호, 민균홍 조사면담.
  - 2023.6.1. 민길호 조사면담.
  - 2023.6.16. 이상호, 최상훈 조사면담.
  - 2023.6.21. 민균홍 조사면담 외 다수.
- 민중태 제적등본 등.



# A Study on the Production, Supply and Demand of *Najeonchil* Craft Works with a Focus on the Artisan, Min Jong-tae

**CHAE Young** Head Curator, Exhibiton & Planning Division, SeMoCA

[chaeyoung@seoul.go.kr](mailto:chaeyoung@seoul.go.kr)

## Abstract

The modernization of *najeonchil*, or mother-of-pearl lacquerware, began in the latter era of the Joseon period and started to set in during the phase of industrial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Especially, the rise and fall of *najeonchil*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00s fluctuated more compared to other types of craft.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duction, supply and demand activities of the works by Min Jong-tae, who was born in 1915, began his career in 1929 and devoted 70 years of his life creating *najeonchil* craft and furniture. As an apprentice under Jeon Sung-gyu, who revived the craft of *najeonchil*, Min Jong-tae was not only an artisan who ranked alongside Kim Bongryong, Song Juan, Shim Bugil, Kim Taehee, but also a businessman. In particular, Min led the boom of modern *najeonchilgi* during the 1970s-80s in Seoul,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market at that time. However, studies about Min Jong-tae are almost non-existence, despite his accomplishments. This study first describes how Min Jong-tae began the craft of *najeonchil* and early days of his career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then retraced his efforts in building a supply and demand system in the 1950s-60s. Moreover, this paper covers not only his creations of large-scale *najeonchil* furniture in the advent of an era of 'wardrobe culture' in the 1970s-80s, but also his exported pieces to Japan, including incense boxes and tea container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eriv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Min Jong-tae's role as an artisan of *najeonchil*- designated as 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 in the field of craft.

**Keywords** Min Jong-tae, *najeonchilgi*, craft work, supply and demand, *najeon* design

Received 2023. 6. 30. | Revised 2023. 7. 31. | Accepted 2023. 8. 16.

